

주간기도정보

2025. 3. 2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국교회 ‘종합 진단’ 해보니…“신앙 개인주의 탈피 시급”

두란노바이블칼리지, ‘목회 데이터의 전략적 분석’ 세미나



한국교회를 종합 진단한 결과, 신앙의 개인주의 탈피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50년엔 기독교인이 32%나 감소하며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 ‘목회 데이터의 전략적 분석’ 세미나에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지용근 대표)가 발간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용근 목데연 대표는 “최근 한국교회는 신뢰도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이후 사역 규모 축소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6.2%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050년 1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수로 보면 828만 명에서 56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 대표는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신앙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성도와 목회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친교와 봉사, 실천적 신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교회의 친교 실태를 발표한 이상화 서현교회 목사는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도들은 어려울 때 서로 기도로 돋는다’는 응답(77.6%)은 비교적 높았으나,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50.6%) ‘서로 어려울 때 기꺼이 돋는다’(56.1%) 등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봉사나 선교에 대한 관심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사회봉사를 교회의 필수적 의무로 여기는 비율이 낮았다.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의 경우 ‘재정적·인적 여력 부족’(55.7%)을 그 이유로 꼽았으나, 사회봉사가 교회의 필수적 사명은 아니라는 목회자들의 응답(23.1%)도 적지 않았다.

안덕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 예배학 교수는 “설교가 개인적 위로와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성도들이 대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도들은 예배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꼽았지만, ‘예배를 통해 이웃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48.9%),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43.0%)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번 진단의 목표”라며 “이러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교회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2,27)

하나님, 한국교회 신앙이 자신의 만족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 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된 우리의 실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로서 안 되기에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 앞에 예수생명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선을 행함으로 이기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곧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 단장함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도다”

북한 반체제 조직, 김일성 비석 낙서 영상 공개

“새조선,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목표”



북한 내 반체제 조직으로 알려진 ‘새조선(New Joseon)’이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로 ‘N’자를 표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새조선 측이 지난달 26일 RFA에 전자우편으로 제공했다.

영상 속 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한 남성이 다가가 먹물로 N자를 그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표식비의 형태와 글씨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영상이 실제 북한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에서 최근 세운 표식비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만, 영상 속 표식비는 오래된 형식으로 한글로 연도를 표기했다”며, “글씨체도 북한의 ‘천리마체’로 보이며,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청진 출신 김수경 씨도 영상 속 표식비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며, “실제 북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생명 위협을 감수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비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세워지기 때문에 시각적 충격이 크고, 훼손이 발견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만의 정보 보안 전문가 폴 류 씨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손의 움직임에 따라 몸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는 AI 생성 기술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AI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2%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새조선은 자신들이 북한 내 ‘비밀 자유민주정부’라고 주장하며, 조직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새조선 관계자는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 조직원이 있으며, 보위성이 파악하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김한솔을 구출하고 스페인 북한 대사관 사건을 주도한 ‘자유조선’과 설립 이념과 사상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몇 년 전 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하려다 적발된 중학교 교사가 새조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며, “해당 사건은 정당 창당이 아니라 조직원이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조선 관계자는 “80년간 지속된 김씨 일가의 독재와 세뇌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상실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 조직이 북한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차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안찬일 박사는 “북한 사회도 다원화되면서 반체제 세력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마당 세대의 성장과 함께 노동당의 통제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반체제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시편 103:6-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22)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로 글자를 새긴 새조선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에 주의 공의로운 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몸 된 교회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여기는 김씨 일가와 그 체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사탄의 간계는 십자가의 권세로 끝이 났음을 선포합니다. 탄식하는 이 땅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분단된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완성의 뜻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름부터 ‘청년선교’, “우리는 청년 복음화에 진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이 청년들을 살려



‘사단법인 청년선교’(이사장 여주봉 목사)는 단체명 그대로 청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다. 본부장 박성민 목사는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선교’는 단일 영역이 아닌, 청년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캠퍼스, 군대, 직장, 지역교회, 해외 선교지, 디지털 공간 등 6개 영역을 하나의 선교 플랫폼으로 엮어낸다. 이 플랫폼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록 돋는다.

‘청년선교’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협업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전임 간사 중심이라면, ‘청년선교’는 지역교회의 목회자, 사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간사로 참여한다. 담임목회를 하면서도 평일에는 캠퍼스나 군대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으며, 젊은 간사들의 열정과 목회자들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군 선교에서도 접근 방식이 독특하다. ‘청년선교’는 대부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군단(ROTC) 장교 후보생들에게 집중한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지만, 장교로 임관하면 30명 이상의 병사들을 이끄는 위치에 선다. 현재 전국 119개 학군단 중 83곳에서 신우회를 운영하며, 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2+2 인턴 선교사’는 2명이 한 조를 이뤄 6개월 간격으로 선교지에 파송되어, 4명이 1년간 한 팀으로 함께 훈련을 받는다. 단순한 단기 선교가 아닌 청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박성민 목사는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은 눈빛부터 달라진다. 게임 중독이던 한 청년도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턴 선교사 과정을 마친 후 20%가 장기 선교의 꿈을 품는다. 청년 선교 동원이 저조한 현실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청년선교’는 매년 250개 지역에 1천 명의 청년 인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목사는 “‘청년선교’가 모델이 되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청년들에게 ‘진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많은 사역자들이 애들이 와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애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만 한다. 하지만 교회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설령 아이들이 싫어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르쳐야 한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이 결국 아이들을 살리는 것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청년들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요한계시록 1:5-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라기 1:11)

하나님, 믿음의 다음세대를 찾기 어려운 이때 청년 복음화에 뛰어든 단체와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헌신케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수고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단체와 교회가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방황하는 다음세대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완성을 꿈꾸는 청년들을 일으키사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